

현대패션에 표현된 여성인체 노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The Study on the Image of a Woman's Body Exposur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Sun-You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06. 6. 7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image of a woman's body exposure, expressed in various situations or images in the modern fash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either the exposure or stress of a woman's specific body parts like breast, waist, hips, or legs which can be sensed totally different from man's or the ironic disclosure of body parts always lapped around emphasizes femininity by giving full play the unique sexual beauty of a woman's body. Second, the desire of disclosure to have others' attention with the concealment as suggestive exposure expresses the eroticism. The modified eroticism is found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concept and is based on the desire to make others notice one's existence continually by the sexual exposure dress particularly to entice the other sex, the dismantlement of changing an underwear to an outer-dress, and so forth. Third, both exposure of a woman's sexual body parts and expression of exposure to the utmost by laying a woman's entire body bare can mean sex liberty in the *laissez-faire* generation. This may suggest a pleasure-oriented way of thinking of the self-consolation rather than showing others, or feature the personality and the liberty endowed women with.

Key words: emphasizing femininity(여성성의 강조), eroticism(에로티시즘), expression of personality and freedom(개성과 자유의 표현)

I. 서론

현대의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기호의 하나로 인식되어 온 패션에서 파생되는 현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감성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이것은 패션 스타일이 단순한 양식이나 유행현상에 그치지 않고 의사소통의 코드이자 하나의 표현수단으로서 인간의 자아와 사회적 비판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션 특유의 특성은 착용자의 정체성은 물론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대 예술의 한 영역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특히 문화 예술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오늘날 각 개별 장르를 규정하는 개념 또한 다양한 문화, 사상적 층위를 바탕으로 한 여러 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대패션의 다양한 이미지 역시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 창조적인 역동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패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또한 더 이상 우리 주체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 조각된 꿈을 기탁하는 대상으로서 신체는 소비사회의 욕망을 환기시키는 허상의 직접적인 체물로 등장하게 되었다.¹⁾ 1960년대 이래 철학과 예술 분야에서 신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면서 인간의 몸은 중요한 미적 주제로 부각되게 되었고, 몸에 대한 개념과 정의, 가치와 신념, 권리와 법 등은 수정되어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허상의 조건들이 이제 성 역할이나 연령, 인종 등을 초월해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착용하는 물건인 의복 이상으로 우리의 신체는 물건화되었고 20세기 후반부터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를 지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발흥에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패션은 자신의 표현에 있어서 탈 고정 관념에 의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가지고 인간 내부의 본연의 모습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체노출을 통한 인체의 자연적인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체노출에 대한 감성이 개인의 감성과 자신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²⁾

본 연구는 이러한 패션과 신체와의 담론을 통한 현대패션에 표현된 여성인체노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 현대패션의 다양한 현상과 이미지들 속에서 노출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방법은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위주로 문헌고찰을 하였으며,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패션관련 작품집과 컬렉션지 등을 통해 노출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을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대중성에 대한 고려가 많은 기성복보다 디자이너의 창조적 특성이 더 자유롭게 표출되는 오픈셔츠 작품만으로 한정하여 1990년대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II. 일반적 고찰

1. 노출의 의미

노출은 미의 관점에서 인체의 일부분을 의복 밖으로 드러내거나 인체의 선을 자연스럽게 나타냄으로써 여성 또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이다.³⁾ 그러나 인간 내면을 표출하는 측면에서 신체노출은 인간의 미의식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패션에 나타난 노출의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는 현대인의 감성과 현대패션의 다양한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 노출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욕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노출 디자인은 노출의 방법이나, 노출하는 신체부위, 노출 기법, 노출된 면적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되는 이미지가 달라지며, 이러한 방법들은 인체와 의복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해 낼 수 있다.

Laver는 인간이 의복을 입는 목적은 인체의 성적 매력을 끄는 부위를 주위를 집중시키는데 있다고 보았고 인간은 의복을 입음으로써 성적 관심을 자극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패션은 의복이 노출과 정숙성 사이의 타협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로 패션의 목표는 여성 인체의 여러 부분을 차례로 노출 혹은 강조함으로써 계속 되어 왔다.⁴⁾

Flügel은 은폐와 노출에 관한 인간의 갈등 요구를 양면성이라고 하였는데 이 양면성은 타인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간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출하려는 욕망이 있는 반면 의복으로 몸을 가려 예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인체를 강조하고자하는 은폐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⁵⁾

또 노출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인간은 모태로 회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평화와 풍요의 상징인 모태로의 동경은 생명의 근원지에 대한 동경과 일치하며 나체는 그 성이 허용되었던 즉 완전을 의미하는 모태속의 모습이라는 것이다.⁶⁾ 특히 오늘날 노출이 극에 달해 전라의 상태에서 부분적인 바디페인팅으로 노출을 극대화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2004년 6월 스포츠업체 FILA는 전라의 모델 인체 위에 브랜드의 로고 만을 바디페인팅으로 장식한 전면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눈길을 끌었다. 착의가 요구되는 문명화된 사회에서의 이러한 노출은 현재 잃어버린 연속성에서의 향수와 금기에의 요구이며⁷⁾ 또한 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성의 상품화라는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현대패션에서의 인체의 노출은 단순한 성 본능의 표출만이 아니라 패션의 흐름 속에서 구현되는 아름답고 개성적이며 만족스러운 디자인을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인체의 가치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인체에 관심을 가지고 인체를 패션의 소재로 받아들여 인간 내부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⁸⁾ 또한 예술전반에서 대두되는 노출에 대해 예술적 표현의 자유 또는 성의 상품화라는 등 여러 견해가 맞서고 있지만 노출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표현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스스로의 개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자유감성의 표현의지라고 할 수 있다.

2. 패션에 나타난 노출의 역사

패션에 있어 노출의 역사는 각각의 시대에 따라 노출 부위와 그 개념의 이해가 상이한 면을 보이면서 항상 존재해왔다.

고대 이집트는 뜨겁고 건조한 아열대성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에 간단히 걸쳐 입는 의복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인체를 노출하여 인체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다. 특히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가슴과 배를 강조하였으며 이 부위를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꼭 끼거나 투명하게 비치는 시스템 드레스로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부위를 드러냈다.⁹⁾ 또 이러한 신체노출은 이집트인들의 장식욕구를 야기했으며 그들의 풍부한 장식 감정 및 내세를 믿는 종교 관념은 한층 더 장신구를 발달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¹⁰⁾

인간미의 완벽한 전형의 재현으로 서양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온 그리스는 나체의 아름다움과 율동미를 중시하여 얇은 천으로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드레이퍼리 의복형태가 주종을 이루어 자연적인 인체미를 특징으로 한다.

중세 비잔틴 시대에는 종교적인 금욕주의에서 몸을 완전히 감싸고 드러내지 않는 실루엣과 색조, 문양 등이 종교적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올배 반적으로 피부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기독교정신의 겸손함과 달리 의상의 표면을 찬란한 색상의 자수와 보석으로 장식하였다.¹¹⁾ 그러나 신체를 모두가렸던 비잔틴 복식과는 달리 로마네스크시대의 복식은 상하로 분리되어 허리선을 강조하는 몸에 꼭 맞는 실루엣으로 인체미를 나타내었다.¹²⁾

고딕시대에는 12세기 중엽 십자군전쟁이 실패로 끝나자 인간적인 즐거움을 찾으려는 기풍이 싹트게 되어 과감한 노출을 하게 된다. 13세기 중엽에는 코르셋으로 허리부위를 조이고 유방을 치켜올려 여성미를 나타냈고, 14세기 초부터는 목둘레선이 깊이 파여졌으며 어깨를 노출시켰다.¹³⁾

르네상스시대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에 의미를 둔 자아발견의 시대로 인체를 인위적으로 확대 과장하여 과장된 복식의 형태미를 이루었는데, 여성복의

경우 목둘레선을 깊게 파고 스커트를 부풀려 가는 허리를 강조하여 인위적으로 과장된 여성미를 추구하였고 노출에 있어서는 대담해져 목이나 유방까지 노출을 시도하였으며, 바로크시대 여성복식은 목둘레선을 많이 판 데콜테 현상이 다시 생기면서 유두가 보일 정도로 대담한 노출을 보였다.

살롱문화로 대표되는 로코코시대에는 모든 종류의 장식이 사용되어 관능적이고 향락적인 특징을 보이며 가슴을 강조하여 유방이 많이 노출되도록 깊게 내려갔다. 당시 로브의 전형적인 모습은 가슴 깊이가 판 데콜테와 크게 부풀린 스커트로 네크라인은 어깨까지 파인 스퀘어 네크라인이거나 바토 네크라인으로 가슴이 거의 노출될 정도였고, 지나친 코르셋의 압박으로 허리는 극도로 조여 졌으며 노출된 가슴의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것이 매력이었다.

이와 같이 복식의 역사상 종교적 정숙성을 강조한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노출을 금하였으며, 인간의 감성이 중요시되던 시대에는 여성의 부드러움과 허약성을 표현하는 목과 앞 가슴부분, 어깨 등을 드러내어 여성의 에로티시즘을 강조하였다.

근대에 이르러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과 같은 역사적 배경은 이 당시 복식에 큰 영향을 주어 하이 웨이스트, 규칙적인 주름의 슬림-롱 라인의 형태로 급변하였다. 특히 엠파이어 라인의 끈으로 몸통에서 가슴을 분리시켰고 깊게 파인 네크라인으로 인하여 가슴 노출에 강조를 두었으며, 얇고 환히 비치는 머슬린 옷감을 사용한 슈미즈 가운데 맨살 위에 착용함으로써 긴 다리의 곡선을 간접노출시켜 육체미를 나타내었다. 또한 낭만주의라는 시대사조 아래 왕정 복고기에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넓은 어깨폭과 어깨선이 많이 내려온 상태로 네크라인을 옆으로 퍼지게 하여 어깨라인의 노출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출의 역사 전개에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의 노출은 금기 사항이었는데 이 부위는 성적 흥미를 유발하는 부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대가 되면서 로우 웨이스트와 더불어 다리에 중점을 두는 무릎길이의 짧은 스커트와 바지가 나타나 복식사상 처음으로 가슴, 허리, 힙에서 벗어나 종아리가 노출되기 시작했

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 남녀평등과 같은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자유에 대한 일종의 가시적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1930년대가 되면서 스커트는 다시 길어지고 허리선이 부활되었으며 등을 드러낸 베어 백 이브닝 드레스의 출현으로 여성의 수동적인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었다. 1950년대 비키니룩을 선두로 1964년 Rudi Gernreich의 토폴리스 수영복이 발표되어 처음으로 육체를 과감하게 노출하였다. 이러한 노출에 대한 욕구는 수영복만이 아니라 평상복에도 반영되어 1970년대 시스루 블라우스를 통한 가슴노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0년대에는 바디컨서스 라인이 일 반화되었고 극단적으로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투명 소재, 란제리룩 등이 나타났으며 1990년대에는 다양한 패션의 연출로서 가슴과 배 등 신체부위를 대담하게 노출시키는 섹시룩 등이 나타났다.¹⁴⁾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현대 패션은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충동적인 혼돈의 양상을 보여 노출패션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Ⅲ. 현대패션에 표현된 여성인체 노출의 이미지

고대부터 인간은 노출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표현해 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기 말적 현상으로 현대패션은 기성 도덕 관념의 붕괴, 자연주의로의 회귀, 현대인의 고갈된 정신상황 등을 배경으로 하여 다양성과 개성을 표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대범한 노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 전반에 내재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어떤 틀에도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양식으로 여성인체의 노출을 가시화 시켜 다양한 형태와 소재, 표현기법 등을 나타내며 관능적이미지를 주로 한 강한 개성의 표출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이후 패션에 표현된 노출의 조형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신체곡선을 강조한 실루엣을 중심으로 구조적이고 비구조적인 형태 등 다양한 실루엣과 소재가 사용되었고, 노출기법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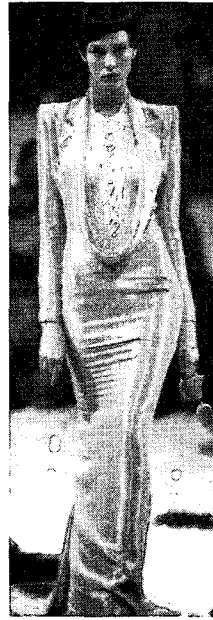
완전노출에서부터 간접적인 노출, 소재나 컷팅, 슬릿 등을 이용하여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관능적인 감성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의 강조, 에로티시즘, 개성과 자유의 표현으로 코드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여성성의 강조

개인이 자신의 신체를 가꾸고 의복을 착용하는 방식은 그가 속한 사회의 신체에 대한 가치관, 미적 감각, 인지, 사고방식 등 신체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이상적 신체형은 각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창조되었고 여성들이 동일시 하고자 했던 문화를 표현해 왔다.¹⁵⁾ 일반적으로 여성적이라는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여성답다는 의미로 사회,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성성이란 남성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여성 인체의 강조 또는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감응력, 미에 있어 부드러움, 여성의 곡선적인 움직임과 같은 여성적 특질을 가르킨다고 할 수 있다.¹⁶⁾

특히 여성의 신체 중 가슴은 남성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여성성의 상징으로 가슴 노출이라는 그 자체 만으로도 여성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원피스 드레스의 변형된 테일러드 칼라 속으로 가슴을 암시하는 듯 가리면서 노출하는 것은 노출과 은폐, 즉 정숙성과 비정숙성의 양면가치가 동시에 발생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깊게 파인 네크라인 위로 흘러내리는 목걸이 장식 사이사이로 비쳐지는 가슴과 광택소재의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비쳐지는 '여성적인 실루엣은 여성의 비밀스러운 요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인체를 직접 보는 듯한 암시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 여성은 남성보다 명확한 허리곡선을 지니고 있으며 르네상스, 바로크, 낭만주의 시대를 거쳐 가는 허리가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정착되었다.¹⁸⁾ <그림 2>는 허리를 중심으로 상하 방사선의 형태로 뻗어 나간 직선의 형태와 함께 울퉁미를 더하고 양 허리 부분의 부분적인 노출은 가는 허리의 강조 뿐만 아니라 여성 인체의 곡선을 잘 표현해 준다.



<그림 1> Givenchy, 1998
S/S



<그림 2> Versace, 1999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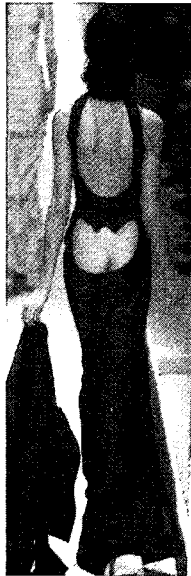
16세기 이후 패션은 가슴, 허리, 힙의 강조에 의한 실루엣의 변화가 주를 이루었고 오랜 기간 동안 다리를 가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여성들에게 20세기 초반 다리의 노출은 획기적인 혁명으로 1960년대 미니스커트의 출현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림 3>과 같이 극적인 볼륨의 드레스는 가슴 아래 부분의 가는 허리와 힙, 다리 전체를 노출시킴으로써 부풀려진 상체와 대조를 이루어 여성인체의 조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인체의 조형성을 강조하는 부분 중 엉덩이는 지나친 과장을 하지 않더라도 엉덩이는 허리와 대조되어 풍만함과 다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크기와 팽창의 강조는 곧 여성적인 매력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림 4>의 자유롭게 컷팅된 드레스 뒷면은 등의 노출과 함께 엉덩이의 대부분을 노출시켜 성적인 유혹과 함께 여성의 인체를 디자인의 요소로 사용함으로써 신체의 적절한 이용과 표현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의 전달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등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넓이가 광대하며 척추



〈그림 3〉 Jean Paul Gaultier, 2001 S/S



〈그림 4〉 Jean Paul Gaultier, 2002 S/S



〈그림 5〉 Givenchy, 1998 S/S



〈그림 6〉 Jean Paul Gaultier, 2002 S/S

를 중심으로 패인 굴곡으로 인해 성적 매력을 주며 그 부위가 적으면서 상부일 때는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그 노출 부위가 넓거나 허리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섹시함을 준다.¹⁹⁾ 유행의 역사상 몸의 다른 부위를 가린 채 등을 노출시키는 것은 여성성의 강조와 함께 억제된 에로티시즘의 표현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림 5〉는 인어공주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실버 머메이드 드레스로 허리선 아래까지 깊게 파여 가느다란 실버 비즈로 장식되어 노출된 등은 여성적인 신체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의 신체가 주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노출시킴으로써 여성들만이 갖는 신체의 이미지들과 여성인체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키는 여성성의 강조를 표현하였다.

2. 에로티시즘

에로티시즘은 그리스의 에로스 에 어원을 두고 있는 말로서 여성의 본질적인 성, 즉 생물학적인 성을 인정하고 그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이며,²⁰⁾ 정신적 추

구로서의 에로티시즘은 육체적인 애욕에 이르는 기호로서 풀이되는 것과 함께 인간의 문화적 전통, 습속, 종교, 예술 등의 내부에 잠재되어 관능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유발하는 성질을 의미한다.²¹⁾ 또 타인을 향한 자신의 내비침, 내보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심리적 표현행위가 갖는 특징, 즉 성적인 태도로 요약되는데 성에 대한 갈망, 혹은 열정, 성에 대한 친화력, 성적 표현 등의 본질로 설명된다.²²⁾

인간은 성을 주제로 하여 의복 착용의 동기가 단순히 신체보호라는 기능적 개념을 넘어선 자기 표현으로서 성적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각 시대마다 인간은 어깨, 가슴, 힙,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장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에로티시즘은 표현되어 왔다. 인간 무의식 세계의 성적 본능으로 인해 성적매력을 과시할 수 있도록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다는 Flügel은 패션의 에로티시즘을 강조하며 의복상 성차의 필연성은 성 자체를 강하게 하려는 욕구를 주고 열정을 좀 더 용이하고 빈번하게 환기시키려는 목적에 도움을 주는 강조의 욕구라고 하였다.²³⁾

일반적으로 복식을 통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출에

의한 것으로서 인체의 부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복식을 통해 인체의 선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성 인체의 성적 매력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Freud가 성적 욕구 중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보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하였듯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신체를 의복으로 가리는 경향이 강해짐과 동시에 이러한 은폐는 오히려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여 감추어진 신체에 대하여 보고 싶은 욕망을 더욱 자극하게 되어²⁴⁾ 직접 노출된 여성의 인체보다 간접적으로 노출된 여성의 인체는 보다 강한 에로티시즘을 전달한다.

<그림 6>은 비치는 소재를 이용하여 모체의 기능과 순결성을 나타내는 가슴부분이 부분 노출된 것이다.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아 유두가 가시화 된 것들은 가슴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누드보다 더 관능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러한 암시적 노출은 노출된 부분보다 가려진 부분에 대한 상상을 자극시켜 이성에게 더욱 큰 성적자극을 전달하며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게 된다. 또 <그림 7>은 드레이프를 이용한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 가는 허리선을 강조한 관능적인 형태의 원피스드레스로 인체곡선을 따



<그림 7> Emanuel Ungaro, 2000 S/S



<그림 8> Jean Paul Gaultier, 2002 S/S



<그림 9> Christian Lacroix, 1997 S/S

라 흐르는 듯한 소재의 느낌은 관능적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며, 원피스 스커트 부분의 긴 슬릿 사이로 비쳐지는 다리의 노출은 틈새로 보고자하는 욕구를 유발시킴으로서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

특히 현대 여성패션에 있어서의 극대화 되어가는 노출의 경향은 남성은 남성의 상징인 남근이 노출되어 있으나 여성은 그렇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방어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 방어의 자세란 복식의 정숙성으로 과시욕구의 반작용 형태이며 여기에서 도덕성은 노출증에 대한 형성반응으로 여성은 신체의 다른 부분을 내보이고자 하는 것에 의해 보상받고자 한다는 것이다.²⁵⁾ <그림 8>은 인체 특정 부위를 통한 암시적인 노출 뿐만 아니라 극대화된 노출의 경향이 전신으로까지 확대됨을 표현하여 자극적인 에로티시즘을 표현하였다.

의복의 3원칙을 계급 제도적 원칙, 유용성의 원칙, 유희의 원칙으로 구분한 Laver는 특히 여성의 복식은 유희의 원칙을 따른다고 주장함으로써 에로티시즘이 복식작용의 주요 원칙임을 제시하였다. 즉 자신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이성을 유희하려는 욕망

과 정숙성의 갈등이 나체에서 의복으로 환원되었고 그때 의복은 절충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의미에서 속옷의 겉옷화 현상은 정숙성과 비정숙성, 퇴폐성과 고상함의 양면가치를 동시에 표출하는 해체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그림 9>와 같이 코르셋을 이용하는 것은 강한 에로티시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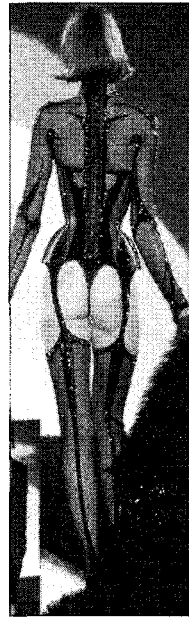
<그림 10> 역시 코르셋과 가터 벨트를 응용한 것으로 기존 고정관념의 성의 인식의 굴레를 벗어나는 해방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모순적으로 인체는 여성적인 성적 상징을 과시함으로써 여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관능적 에로티시즘을 강조하고 있다.

즉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체를 노출하려는 욕망은 성의 상징이 되는 여성인체의 부분을 직접적인 노출보다는 역설적으로 은폐라는 감춤과 함께 암시적 노출로서 에로틱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특히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보여지기 위한 성적 욕망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출하는 관능적인 간접노출 의상이나 속옷의 겉옷화를 통한 해체 등을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된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에로티시즘은 여성의 신체 매력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미에 있어 부드러움 같은 섬세함의 특질을 표현한 여성성의 강조와는 다른 이미지로 여성의 인체를 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닌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표현한 것으로 보다 관능적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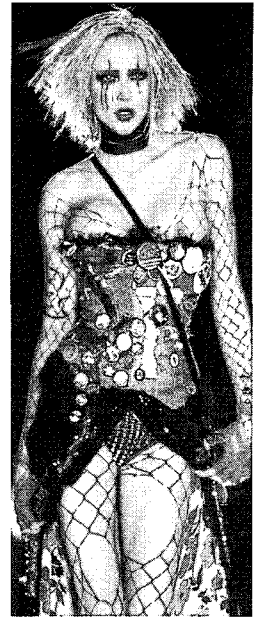
3. 개성과 자유의 표현

포스트모던 시대에 있어 인간의 몸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 심리적·이념적·역사적 의미까지도 내포한 다중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대중문화의 확산, 페미니즘의 활기와 물신주의의 팽배는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여 패션으로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즉 몸과 패션은 상징화의 장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언어 자체의 장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²⁷⁾

또 이전 시대와는 달리 스스로 가꾸고 유지해 가는 능동적인 의미의 소비대상으로 몸과 패션은 물



<그림 10> Thierry Mugler, 1999 F/W



<그림 11> Christian Dior, 2001 S/S

신화되고 있다. Baudrillard가 소비사회에서 신체가 소비의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신체는 의도적으로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되며 동시에 심리적인 의미에서 물신 숭배된다고 하였듯이 이와 같은 관점은 현대 소비사회의 여성에게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이상이며 소비사회의 기호체계는 이를 불가분의 것으로 표준화하고 신비화하고 있는 것이다.²⁸⁾ Frank 역시 신체의 중요한 특성은 신체가 스스로 창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즉 현대인에게 신체는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는 여러 기호 형식들 중 하나로 이는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을 통해 신분을 상승하려는 여성의 욕망이 산업사회라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표출양식을 바꾼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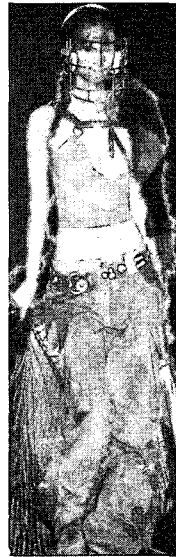
또한 현대 여성패션에서 노출의 정도가 대담해지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여성의 인체가 남성에 의한 바라봄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던 이미지에서 적극적인 보여짐의 행동으로 탈바꿈하게 되어 여성

인체의 노출은 더욱 대담해지고 자유로운 개성을 표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매체들을 접함으로써 노출의 정도에 무감각해지고, 남성이 바라는 여성의 이미지에 있어 정숙성이나 신비로움의 대상으로서 기대 요구가 낮아지면서 더 많은 노출이 당연하게 요구되기도 한다. 또 지난 세기 동안 인체의 특정부위를 인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여성 인체의 이상형을 강조했다지만 현대에 이르러 성 문화의 역할변화에 따라 성은 자유의 상징으로 표현되며 그 동안 억압되었던 성적 표현의 욕구를 분출하여 성에 대한 개방과 집착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왜곡과 강조의 노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림 11〉은 허리를 조이고 가슴을 끌어올려 가슴의 반 이상을 드러내 보이며 유두까지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코르셋 원피스 아래 언더 팬츠의 노출은 치부의 직접적인 연상으로 연결되어 성적 유희와 함께 도발적인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12〉는 돌출된 가슴보다 더 대담하게 한쪽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채 야구 방망이, 헬멧 등을 함께 연출시켜 여군 테마를 부각시킨 작품이다. 여성성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가슴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억압의 대상이었으나 이렇게 완전 개방하는 가슴의 의미는 관능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여성의 자유 표현이며 높아진 여성의 권위를 상징하여 마치 여전사와 같은 이미지를 준다.

패션 뿐 아니라 오늘날 여성 미술 및 에로틱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여성의 육체를 탈외설화하고 탈 식민지화 하는 것이며 여성육체의 금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차별적 위치에 대한 정치적 의식을 지니게 되어 신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여성억압과 투쟁을 표현하게 되었다.³⁰⁾ 〈그림 13〉은 제 2의 피부 같은 투명 소재의 바디수트 위에 크리스탈과 스팅글, 금속성 소재 등을 이용하여 육감적이고 미래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여성의 감추어야하는 성징의 부분들은 의상과 신체 사이의 동일화로 그 경계가 해체되어 여성인체의 개방적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다.

신체가 쾌락의 표현수단이라고 말한 Feathers-tone³¹⁾의 관점처럼 오늘날의 소비윤리는 쾌락적인



〈그림 12〉 Christian Dior, 2001 S/S



〈그림 13〉 Thierry Mugler, 1998 S/S

라이프 스타일, 현재의 욕망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을 조장한다. 아름다운 신체가 공공연하게 선정적인 매력 과시, 향락주의와 관련됨에 따라 개인에게 외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신체는 소비상품으로 물신화되고 성적쾌락을 상품화된 양식으로 재스타일화함으로써 여성의 인체는 상품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기능적인 사물로 인식되기도 한다.³²⁾

따라서 무용, 오페라, 사진 등 현대예술의 각 분야에서 노출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예술적표현의 폭을 넓히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무대에서의 전면노출은 장외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2005년 프랑스 아비뇽 축제의 개막작인 무용극 '눈물의 역사'에서는 무용수들이 알몸으로 등장하여 탄생의 슬픔을 표현하는 등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했으며, 같은 해 성남 아트센터에서 공연되어 호평을 받은 오페라 '파우스트'는 노출 배우 3명을 등장시켜 노출의 여부가 화제가 되고 흥행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³³⁾ 이와 같이 오늘날 인체는 또 다른 예술 형식의 한 유형으로서 출현하게 되는 것으로 인체가 예술의 행위자로서 또는 재료이거나 생산자로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와 정신의 이중적인



〈그림 14〉 Jean Louis Scherrer,
2003 S/S

성격의 통합이 기획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의상을 이용해 인간의 죽음, 욕망, 정체성까지도 상기시키며³⁴⁾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4〉는 우아한 웨딩드레스의 고정관념을 깬 작품으로 깃털과 진주, 루비 등의 장식물로 몸의 일부분만을 가린 채 쇼걸 룩으로 연출된 웨딩드레스이다. 순수하고 순결한 신부의 이미지는 은폐해야 할 신체의 부위를 역설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쾌락적인 욕망을 표출하여 노출에 대한 표현의 자유 또는 여성의 성상품화라는 의견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 코르셋으로부터 해방된 인체는 인체를 바라보는 미의식의 변화와 함께 그 자체가 표현의 수단으로서 현대패션에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하게 된 것으로 여성의 인체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의 탈피, 누드의 범람 등 신체의 패션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패션이라는 것이 인체를 감싸는 조형물로서 인체를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해 주는 도구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이 여성인체는 성적 부위의 노출 및 인체 전 부위의 노출을 드러내며 나아가 노출 자체를 위

한 여성인체의 관능미를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성향을 띤다. 즉 노출의 극대화로까지 표현되는 이러한 현상은 자유방임시대의 성 개방을 의미할 수 있으며 여성인체의 조형성이나 에로티시즘과 함께 여성에게 부여된 개성과 자유를 표현한 것으로 이 시대를 특징짓는 변화의 욕구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인간은 자신의 몸을 통해 스스로의 개성을 표출하고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제 2의 피부라고 할 수 있는 복식은 이러한 인간의 몸 위에 입혀져 또 다른 메시지를 표출하게 된다. 신체 노출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욕구와 이성을 유혹하고 또 다른 개성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패션에서의 노출 디자인은 그 방법이나 기법, 노출하는 신체부위 등에 따라 상대에게 전달되는 이미지가 달라지게 되어 인체와 의복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해 낼 수 있다. 특히 현대패션에 있어서의 노출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수단이며 일방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효과적인 노출로 인해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의 다양한 현상과 이미지 속에서 표현되는 여성인체 노출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로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첫째, 가슴·허리·엉덩이·다리 등 남성의 신체가 주는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노출시켜 강조하거나 항상 가려져 있던 부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어 여성들만이 갖는 신체의 이미지들과 여성인체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켜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섬세함, 미에 있어 부드러움 같은 여성성의 강조를 표현하였다.

둘째,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체를 노출하려는 욕망은 성의 상징이 되는 여성인체의 부분을 직접적인 노출보다는 역설적으로 은폐라는 감춤과 함께 암시적 노출로서 에로틱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고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특히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보여지기 위한 성적 욕망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출하는 관능적인 간접노출 의상이나 속옷의 겉옷화를 통한 해체 등을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된 에로티시즘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셋째, 여성인체의 성적 부위의 노출 및 인체 전 부위를 드러내어 노출의 극대화까지 표현되는 것은 자유방임시대의 성 개방을 의미할 수 있으며 남에게 보여주기 보다는 스스로 즐기려는 쾌락적인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고 여성인체의 조형성이나 에로티시즘과 함께 여성에게 부여된 개성과 자유를 표현한 것으로 새로움에 대한 욕구이며 이 시대를 특징짓는 하나의 이상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신체는 자연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천이 아니라 성의 개방화와 많은 상업성과 맞물려 자기 자신을 가꾸거나 변형시키게 되고 그러한 신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이나 자유를 표출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패션에 표현된 여성인체는 더 이상 고전적이고 순결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매체가 아니라 노출 패션을 통해 성적인 매력을 발산시키는 여성성의 강조, 쾌락의 표현수단이며 과시적 노출과 관련되어 새로운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 박파랑 (2005). *Vision of the body 2005*. 서울: 시립미술관, p. 23.
- 2) 김지연, 이경희 (2001). 현대패션에 나타난 인체노출의 감성연구. *의류학회지*, 25(5), p. 914.
- 3) *Ibid.*, p. 915.
- 4) Laver, J. (1969). *Modesty in Dress*. Houghton Mifflin, p. 97.
- 5) 임성임, 박민여 (2004). 패션의 노출과 은폐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 1395-1403.
- 6) 임성임, 박민여. *op. cit.*, p. 44.
- 7) 오희선 (1997).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p. 113.
- 8) 김지연, 이경희. *op. cit.*, p. 915.
- 9) 김민자 (2004).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p. 58.
- 10) 정연자 (1999). 복식에 표현된 노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 p. 96.
- 11)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 115.
- 12)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1996).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pp. 113-114.
- 13) 정연자. *op. cit.*, p. 96.
- 14)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p. 49.
- 15) 김소영, 양숙희 (2002). 패션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복식*, 52(7), p. 142.
- 16) 이연희, 김영인 (2005). 현대패션 특에 표현된 성 정체성. *복식문화연구*, 13(5), p. 127.
- 17) 남후남, 금기숙 (2005).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가슴노출의 의미 연구. *복식문화연구*, 13(2), p. 113.
- 18) 오희선. *op. cit.*, p. 95.
- 19) 정연자. *op. cit.*, p. 93.
- 20) 김영현, 양취경 (2005). 현대패션의 로맨틱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5(1), p. 8.
- 21) 서영희 (2001). 구스타브 클림트의 작품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의한 창작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7.
- 22) 김재숙, 윤지현 (2003). 1990년대 후반의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복식문화연구*, 11(5), p. 320.
- 23) 김혜정, 임영자 (1993). 포스트모더니즘 의류광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복식*, 21, p. 102.
- 24) 김민자. *op. cit.*, p. 83.
- 25) Steele, V. (1985). *Fashion & Eroticism*. New York: Ovford University Press, pp. 27-29.
- 26) Jeanette, C.L. & Robert, H.L (1981). *Fashion power: The meaning of fashion in American sociality*. New York: Prenticehall, pp. 16-17.
- 27) 김민자. *op. cit.*, pp. 88-81.
- 28) J. Baudrillard (1970). *La societe de consommation*. Paris: Gallimard, p. 221.
- 29) 김소영, 이병화(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신체의 미의식에 관한 연구. *복식*, 54(3), p. 133.
- 30) Parker, Rozika & Griselda Pollock(1995). 이영철, 목천균 역. *여성, 미술, 이데올로기*. 서울: 시각과 언어, p. 204.
- 31) Featherstone, M. (1991). *The body in consumer culture*. The body: social process and cultural theory. London:sage publication, p. 170.
- 32) 김소영, 이병화. *op. cit.*, p. 139.
- 33) 박돈규 (2006. 2. 2). *알몸의 힘*. 조선일보, A8.
- 34) 허정선, 금미숙 (2004). 패션아트에 나타난 몸의 왜곡과 변형에 관한 연구. *복식*, 54(3), p. 149.